

# 고대 그리스인도 무량보주 상징 알았을까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로제트→무량보주



한국미술사 용어 바로잡기는 한국문화 바로잡기이며, 더 나아가 세계미술사 용어 바로잡기이며 따라서 세계문화 바로잡기여서 국가적 사업의 성격을 띤다.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범세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대 작업이며 혁명적 작업이다. 불교미술 즉 한국미술의 맥(脈)을 수 천 년 만에 찾아내어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나가는 사이에, 세계 학자 대부분이 써온 미술사 내지 문화의 용어가 오류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서양을 포함한 '세계미술사의 틀린 용어들'을 나 홀로 바로잡아나가야 하는 어렵고도 고독한 작업이다.

지금 이 연재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와 관련된 사진들과 도면들은 필자가 평생 세계의 모든 장르에 걸쳐 기록하고 촬영하고 스케치한 것 등 엄청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문양집은 물론 모든 보고서와 세계미술전집류, 그리고 일본, 중국 그리고 서양에서 출판된 모든 미술 관련 서적들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의 문양집 가운데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책은 '西上 하우오'의 《세계문양사전》(대판, 창원사, 1994년)이다. 사진이나 도면들이 가장 정리가 잘된 사전이지만, 용어와 설명은 대부분 틀려서 이 사전을 바로잡아 가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 학자들은 동서양의 문양을 다루지만, 서양 학자들은 주로 서양 것만 다루어 한계가 있다. 일본은 일찍이 서양 근대화를 동양에서 가장 먼저 이루었으므로 서양의

문양 역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으므로, 서양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일본 학자들이 답습하였고, 일본 학자들이 또한 동양 미술의 용어를 잘못 지은 것이 많아서 모든 문양집의 용어가 틀리므로 해석도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술사학의 틀린 용어를 바로 잡는데 이미 두 해에 접어들었고 틀린 용어가 너무 많아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집필할지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용어가 틀린 용어인지 잡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틀린 용어를 바로잡기 위하여 모든 장르의 작품과 도면을 동원하여 증명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이 해석해야 하므로 여간 고된 작업이 아니다. 가장 고된 것은 틀린 용어가 너무 많으므로 바로잡아 가는 동안 자유롭게 어휘 선택을 할 없어서 동시에 올바른 용어들을 만들어 가면서 써나가는 것이다.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세계문화사적 위기를 느끼며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는데, 수 천 년 오류를 바로 잡아 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두 해째 매주 하나의 작은 논문을 쓰라는 것은 업무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대화점이라든가 국화꽃 그리고 국화당초문 등 용어들을 바로잡아 왔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고대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고대문명 발상지와 관련된 문화에서 똑같은 무량보주 조형을 만나는 것은 이제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팔메트나 인동, 석류, 귀갑문 등 수많은 동서양 미술사의 용어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오류를 밝히는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전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

을 입증하여 왔다.

고대 서양과 서아시아는 교류가 오래고 깊어서 한 문화권이라 말할 수 있는 만큼 공유하는 조형이 많다. 그 가운데 서양학자들이 말하는 '로제트'라고 말하는 흔한 조형을 재색분석해 보았다.(그림 ①) 로제트라는 말은, 원형의 중심에서 꽃잎모양의 문양이 방사상(放射狀)으로 확산하는 등근 꽃장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민들레, 질경이, 달맞이꽃 등이다. 활짝 핀 장미(rose)를 연상케 한다는 것으로부터 rosette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으며, 종교적·장식적 모티프로서 태양을 상징한다고 한다. 단독 또는 연속해서 고대 이후 지속적으로 모든 조형미술 장르에 응용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설명을 살펴보니 서양에서 정면 형 즉 평면도로서의 연꽃(lotus)무늬를 로제트라고 부르기도 하여 혼동하기 쉽다. 자, 이렇게 말하는 조형들을 반전시켜 재색분석해 보니 설명할 것도 없이 한국의 무량보주와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무량보주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으니 세계 학자들이 말하는 로제트는 틀린 용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등 여러 가지 재색분석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다. ①과 ②가 본질에 가깝다. 중심의 중심원은 동양에서와 같이 보주에서 보주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주변으로 무량한 보주들이 확산하여 우주에 가득 찬다는 상징을 보여준다.

그리스 항아리 도기에 그려진 신화 관련 조형들을 보면 놀랄게도 그 배경에 조선시대 불화 천공에 나타난 무량보주와 똑같지 않은가.(그림 ②) 더구나 지그재그 조형도 고구려 벽화의 영기문과 비슷하다. ①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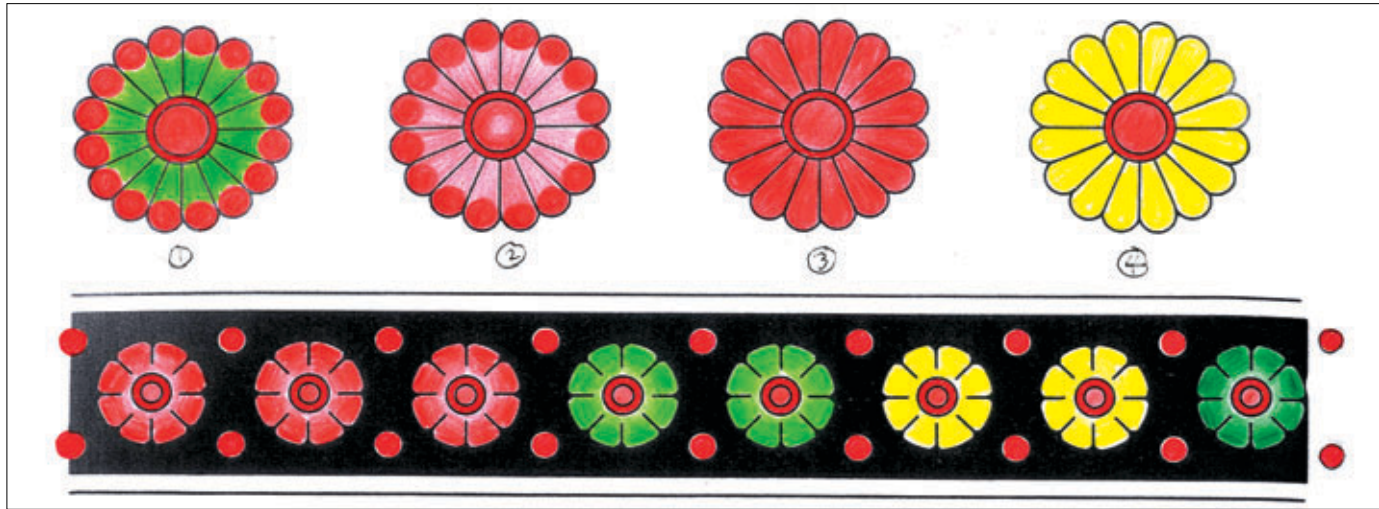


그림 ① 기원 전 고대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 공통된 무량보주 조형들. 아래 무늬는 그리스 것. 부주의 표현원리를 알면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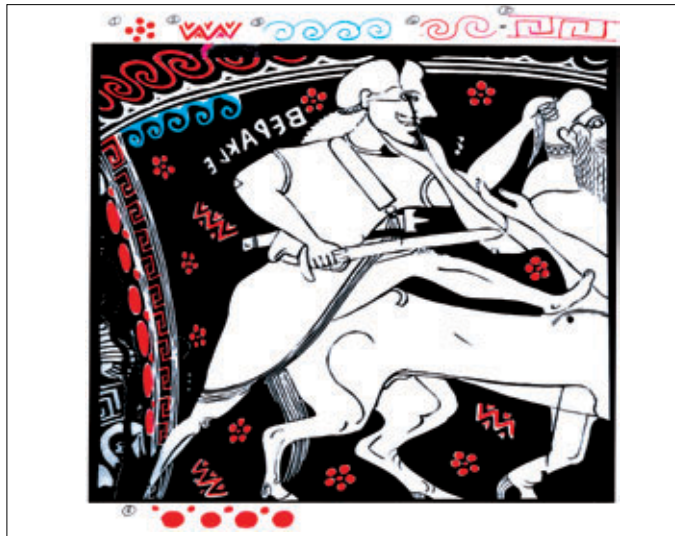


그림 ② 그리스 도기, 아테네 출토, BC. 600년 경



그림 ③ 그리스 도기, BC. 700년 경

량보주요, ②는 번개 같은 것이요, ③은 제1영기씩을 연이은 물을 상징하는 것이요, ④는 불화에 항상 보이는 여래의 정수리에서 발산하는 영기요, ⑤는 그것을 직선화한 것이요, ⑥은 큰 보주들 사이에 작은 보주를 배치한 것이다. 또 다른 그리스 항아리 도

기에 그린 조형을 보면, 신화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모르나 배경에 무량보주를 곳곳에 나타내고, 양 다리에서 제1영기씩 면(面)이 발산하고 있고, 하의 띠에는 제1영기씩이 연이은 물을 상징하는 조형이 보인다. 그리고 날개도 봉황에서와 같이 영기문을

나타내어 이 글에서는 언급을 생략한다.(그림 ③)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은 참으로 무량보주의 상징을 알았을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옛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끝> **일행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 강우방 원장의 연재를 읽고



nung seung sun  
부신 불교정보사 주지

“ 늘 보면서도 본질에 무감각 학계의 체계적 연구 결과 기대 ”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반감되는 듯 하지만 깊이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신문은 늘 반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일상적인 소식에는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 의식이 있다.

예를 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 또는 자살 등의 뉴스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를 일상적 반응이라 한다. 이같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이 다르지 않듯이 사찰에서 늘 마주하는 부처님과 경내 곳곳에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일상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같은 일상적 반응에 민감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특별한 인연이 바로 “강우방 원

장의 한국불교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라는 기획연재였다. 우리는 일상적 반응으로 사찰 곳곳에서 보이는 단청 그리고 예불 때마다 접할 수 있는 불단이 머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헤아리지 못했다.

이번 기획연재는 새삼 새롭게 느껴지고 그 깊이를 더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불단(佛壇) 또는 수미단(須彌壇)이라 부르고 불탑(佛塔)의 가장 중심부분을 보주(寶珠)라 부르지만 그 본질을 헤아림 없이 늘 일상적 반응에 무감각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아주 전문적인 장인이나 학자들의

## 불교미술 진면목 접하는 계기 돼

몹이 아니라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일으켜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미술의 진면목을 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에 담긴 뜻을 헤아리고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번 연재의 가치를 더 한층 돋보이게 했다.

이에 강우방 원장의 주장에 많은 부분 뜻을 같이 하면서 산승이 깊이 없는 의견이나 마의문이 일어 피력하고자 한다. 수미단(須彌壇)과 불단(佛壇)을 영기단(靈氣壇)이라 부르고 영기좌(靈氣座)라 이름하는 것은 그동안 학자로서 연구 성과에 기인했을 것

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영기(靈氣)의 체(體)가 무엇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영기를 발산하는 그 본질을 헤아리고 무량보주가 품고 있는 근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만(凡)자로 표현되고 있는 길상(吉祥)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없음에 대한 문제 의식에 함께 공감한다. 이 같은 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이름을 붙이고 그 뜻을 헤아리게 할 것이라 생각하며 더 깊은 연구에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또한 목말라한다. 물론 이에 대한 깊은 연구는 전문성을 가진 장인과 학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에 산승이 단순한 문제를 제기하는 일면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내어 놓을 준비

를 하고 있음을 첨언하고 싶다.

늘 약사여래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마주 하지만 만병(滿瓶)과 약함(藥函)에는 과연 망망대해(茫茫大海)가 들어있을까? 관세음보살이 기울이는 그 정병의 물은 무엇인가? 과연 강우방 원장의 주장과 같은 영기인가 만약 영기라면 그 영기는 어디서 나타나는가라는 학문적 연구에 감동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들을 오직 일승(一乘)으로 이끌어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여 부처이루는 대원으로 나뉘셨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달음을 구하지만 일상의 안이함에 빠져 그 참된 면면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범부중생의 몸매한은 아닐까? 오늘날도 무명을 밝히는 신문을 접하면서 내내의 자성을 일깨우는 분주함에 젖어 든다.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체험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공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불자가수 비유티, 연말특집** 2013. 12. 22 6:00 PM KBS 1TV

**KBS 열린음악회 초청 출연**

모두가 목말라하던 불교음악 최초의 획기적인 전환과 새로운 시작을 알린 '부디스트 락'과 '마인드힐링 락'을 창시한 "비유티", 격조와 대중성을 지닌 기념비적인 노래 "부처님 오신 날" 경축가를 만들고 불려서 불자들에게 감동과 환희심을 선사하고 있는 무장로 뮤지션 "비유티"가 12월22일 KBS 1TV 연말특집 열린음악회에 초청되어 따뜻한 노래를 선사합니다.

지난 4월, 불교음악의 대중성과 세련미, 팔리터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불교음악 사상 최초로 그래미상 6관왕에 빛나는 토마레이 등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평이 된 '부디스트 락' 앨범을 출시하여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과 환희심을 선사하고 있는 생애이시절 한 불자가수 "비유티"가 이번 열린음악회를 포함하여 더욱 활발한 방송활동을 전개합니다.

부디스트 락 앨범 (부처님 오신 날)

**신간**

대승불교를 현학적으로 알수있는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병별기**

오형근 박사(동국대학교 전 불교대학원장)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로이 번역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원효소는 세계적인 명저로서 대승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30쪽 | 가격 50,000원

돈황굴에서 발견된 대승기신론 원효소 필사본은 현재도 영국 대영도서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음의 본체인 일심(一心)과 그 작용인 진여문, 생멸문을 깊이 설명하여 인성(人性)을 계발하고, 일심(一心)에 이르는 선수행(禪修行)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시켜 줍니다.

▶ 판매처 : 교보문고, 조계사 앞 불교전문서점  
▶ 보급처 : 도서출판 대승(02-2264-7120)